

日 성마리아병원 연수 후기(2005.2月)

참석자 | 박용상, 박종각, 박성열, 김현정, 조미영, 김정숙
(사회 | 본지 편집주간 윤학식)

사회자 | 지난 2005년 2월 팀을 구성하여 일본 성마리아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본 좌담회에 응해 주신 여러 분들께 협회 회장 신부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수기간 중에 보고 느꼈던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차체에 협회는 회원병원이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연수제도의 활성화와 업무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연수 기간 중 조장을 맡아 고생하신 박용상 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상(병리검사과) | 저는 생리기능검사와 건강진단 센터를 위주로 연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친절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부심은 짧은 시간에 모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말로만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고 환자의 권리현장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만 놓은 우리네 병원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실제 현장에 담긴 내용들이 환자를 위해 실천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영역 다툼을 노골화하는 한국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약사들이 환자를 위해 걸로 표방하는 서비스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와 다른 의료진과의 거리도 좁아 보였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렇게 될 수 없을까 연수기간 내내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종각(방사선과) |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직원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사선과 일반촬영실 견학 중, 모든 직원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사선과 기사장이 술선하여 모범적으로 일하는 모습, 치료 방사선과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저 환자분들은 곧 나의 환자입니다.”라는 사명감에 찬 말씀 등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각 과마다 ‘안전관리 추진자’ 라는 직원을 선정하여 근무 중 발생하는 실수 또는 예상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본받아야 할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박성열(방사선과) | 치료 방사선과에서 환자의 수가 감소되더라도 환자에게 가는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기계를 교체하는 점이라든가, Full PACS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필름을 뽑아주고 그것을 보관하는 것에서 한국과는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고 병원이 환자를 위해 참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환자에 대한 병원의 세심한 배려는 참으로 배울만한 점이었습니다.

김현정(약제과) | 병원약국 시스템 중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를 전에 입원환자의 정기 처방이 이루어져 하루 전에 약을 준비해서 병동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아침에 병동 약을 조제하느라 외래근무자를 제외한(또는 몇몇의 외래근무자까지도) 모든 약사들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각자 파트의 일은 아침조제가 끝난 후로 미뤄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아직 부분 의약분업 상태이기 때문에 외래환자의 약조제로 바쁘다고 했지만 병동 약 조제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러운 부분이었고 이런 시스템은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더 부러웠습니다. 또한 외부조제약국 견학을 갔을 때 24시간 약국을 오픈할 것을 대비해서 침대와 세면기 등도 설치해 두는 철저한 준비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조미영(임상병리과) | 다른 나라의 의료 현실을 접하다 보니 새삼스레 제가 하고 있던 업무와 비교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연수는 병원 및 개인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임상병리과에서 느낀 점은 철저하게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많은걸 느꼈습니다. 외래환자의 80% 이상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그 환자의 대부분이 오전에 집중되는 것에 놀랐고, 응급검사 결과를 채혈시점에서 결과보고까지 30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는 긴급검

사실의 업무시스템에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검사실의 전체 인원이 전원 교대근무 되는 것과, 전 파트의 업무를 언제 어느 때고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트레이닝 되어 있는 Multi Skill System, 주 5일 근무의 휴가 방안으로 1/2, 1/4, 전일 휴가의 적절한 사용으로 효과적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도 직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오랜 동안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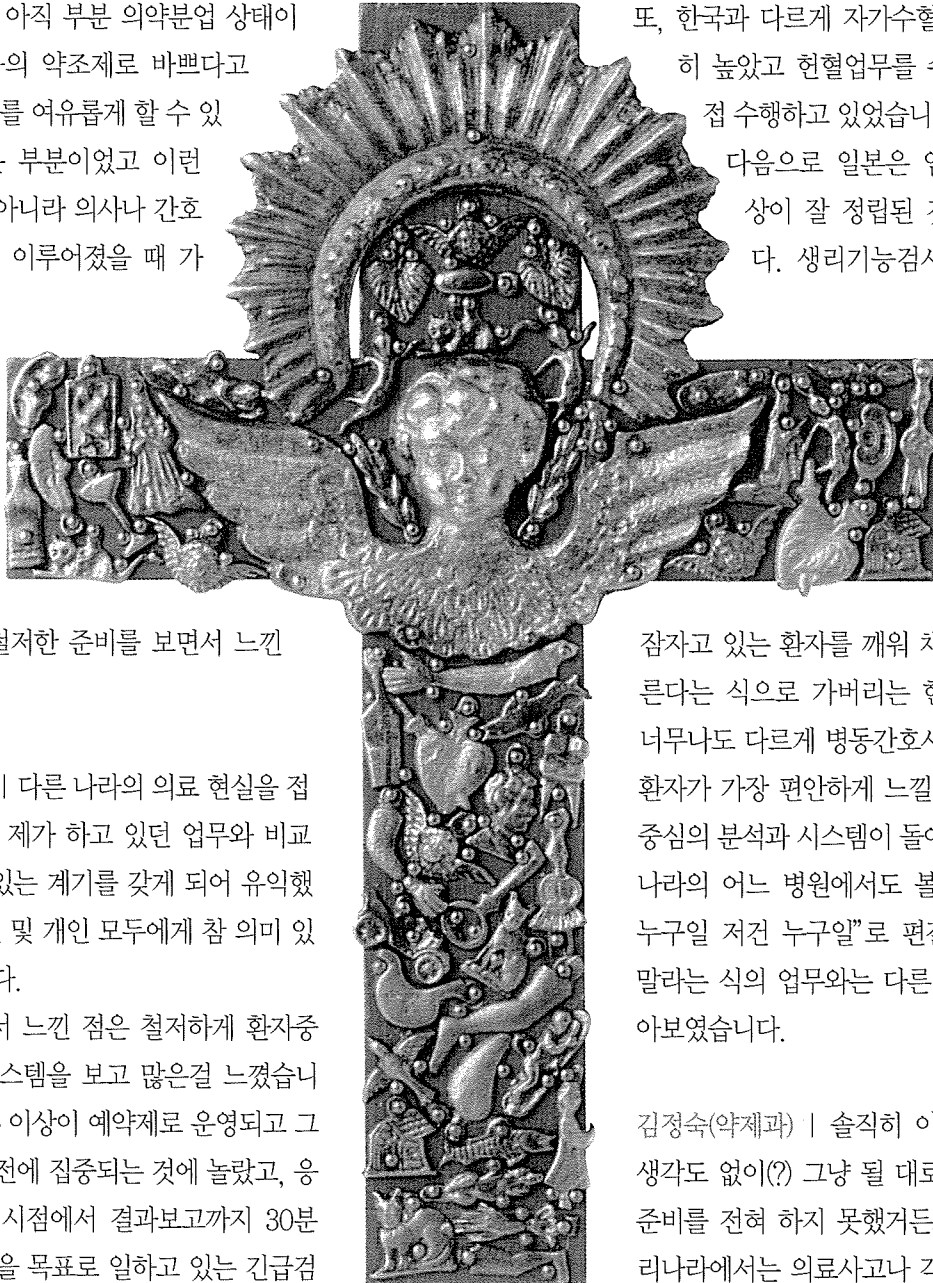
또, 한국과 다르게 자가수혈의 비중이 확실히 높았고 헌혈업무를 수혈전문 의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임상병리사의 위상이 잘 정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생리기능검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물론 specialist)로써 체계가 잘 잡혀있어서 한편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새벽에

잠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 채혈하고는 나 모른다는 식으로 가버리는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병동간호사가 채혈을 하고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분석과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느 병원에서도 볼 수 있는 “이건 누구일 저건 누구일”로 편갈라서 간섭하지 말라는 식의 업무와는 다른 점으로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김정숙(약제과) | 솔직히 이번 견학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나 각 부서의 소소한



“

연수제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친절정신, 의료진 간의 화합과 협력, 철저한 프로정신은 배워야 할 점이라 이구동성으로 개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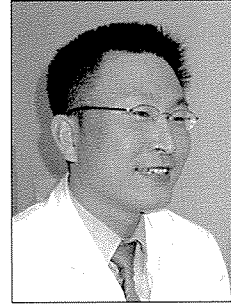
”



박 용 상 임상병리사
성모병원



박 종 각 방사선사
강남성모병원



박 성 열 방사선사
창원파티마병원

실수들은 병원의 관리자들 선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데, 성마리아 병원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과 행동으로 실수(Error)를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과 대안 제시를 하면서 너무나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자료를 공유한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또한 병원 외부에 있는 약국의 견학에서 본 아기들을 위한 조제 약국의 봉투와 스티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사회자 | 연수제도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의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친절정신, 의료진 간의 화합과 협력, 철저한 프로정신은 배워야 할 점이라 이구동성으로 개진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이 각자 병원으로 돌아가면 좋은 영향을 전파하는 선각자가 되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연수과정, 준비 등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 연수의 깊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인플루엔자 감염을 우려하여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 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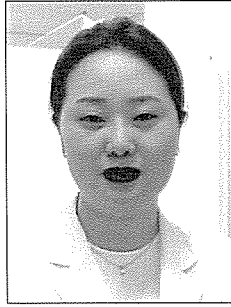
약국의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약사들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일본의 병원과 약국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이후 연수자는 우리의 실제 업무방식, 서류(마약처방전, 약품식별의뢰서 등)를 미리 준비해서 연수에 임하는 것도 상호 교환적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김현정 | 역시 일본어였고요..... 특히나 저희 병원 약국에서는 약사가 처음 가는데, 성마리아 병원 쪽에 저희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점이나 한국과 일본 병원 약사의 현황 비교와 병원약사로서 느끼는 점(개인적으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안되다 보니 혹시 일본의 약사들이 한국 약사 전체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답니다.

박성열 | 말이죠. 머 불편해 살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도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좀 더 많이 질문하고 알아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더군요. 이야기 하는 것이 피엄피엄 머리에 들어 올 때의 기분은 묘합니다.



김 현 정 약사
성빈센트병원



조 미 영 임상병리사
창원파티마병원



김 정 숙 약사
메리놀병원

“
역시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점은 언어장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군요. 참가자 여러분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후 연수에 참가할 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

조미영 | 먼저 일본어를 잘 못해서 정말 아쉬웠던 거 하구요, 둘째로 성마리아 병원에 연수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잘 보냈는데, 일정상 연수 마치고 나서 마리안 하우스를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미리 스케줄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연락해두고 가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스케줄을 잘 조정하고 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종각 | 미리 일본어 회화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면 더욱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을…….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과 야간 시스템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용상 | 평소에 공부 안하고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 그런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평소에 한문공부도 하고 영어공부도 하고 해야지요. 공부해서 남 줘니까 공부를 가장 안 해간다는 공부 못한 것에 대한 미련보다 제일 아쉬웠던 것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밝힌다고 근처에 맛있는 도리야 끼집 못 간 것이 제일 아쉽더구면. 술로 몇 명 더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타깝고, 한국문화를 일본에 소개시켜야 했는데……. (일동 웃음)

사회자 | 역시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점은 언어장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군요. 참가자 여러분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후 연수에 참가할 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써 하고 싶은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병원협회 및 각자 소속 병원에 대한 애기도 좋고요.

박성열 | 계획과 시간이 문제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과나 병실견학도 한번쯤 돌아 보는 것도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고 하루쯤은 다른 병원 탐방도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미영 |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 가정생활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박용상 | 500병상 규모, 8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견학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혼자 다른 검진기관을 견학했으나 그곳은 우리 실정에 비해 너무 좋은 시설과 규모였습니다. 검진 역시, 위 투시와 X선 촬영이 가능한 이동 검진차량만 10여 대에, 한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각 기능별 봉고차를 구비했고, 더 주목하게 한 것은 그런 규모의 병원이 일본 전역에



☐ 성마리아병원 직원들과 함께 단체사진



마리안하우스에서

즐비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동용 CT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인구 30만의 도시에 1300명상의 8개 병동은 한국으로서는 꿈도 못 꾸어볼 그런 규모로 연수생이 속한 각 병원의 규모에 해당되는 시스템이나 환경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병원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5년 정도의 주기로 다시 한번 교환방문하는 연수제도를 실시한다면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중간 관리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연수를 갖는 기회를 추천합니다.

김정숙 | 연수직원이 결정되면요 전체 오리엔테이션 말구요 전년도 각 Part 연수자와 연결시켜 준비를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연수에 참가하는 병원이 있지만 지방 병원은 보통 3~4년 간격으로 연수자가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전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연수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다음해 연수자와 연락처(e-mail)를 서로 주고 받으면 Part별로 준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각 | 연수의 효율화를 위해 전, 후반기로 나누어서 연수팀을 지역별로 배정하여 구성하면 연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반기 - 서울중심지역, 하반기 - 부산중심

지역).

김현정 | 각 병원마다 연수 비용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규정이 달라서 연수를 자기 휴가로 오신 경우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왕복교통비와 체제비, 휴가 규정 등을 비슷하게 조정하도록 협회에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엔 연수기간이 더 길었다는데 10일로 줄어서 조금은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성 마리아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좌담회에 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허심탄회하게 개선해 주신 여러분의 의견이 진정 병원을 위해 업무에 참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과정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이 회원 병원마다 발전을 위한 밑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